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관 소개 :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이루어 갈 일

1. 기본 소개

- 기관명: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 길 23 유진빌딩 3~5 층
- 전화: 02-797-4044 ○ e-mail: noworry@noworry.kr ○ 홈페이지: noworry.kr
- 미션: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 운동
- 핵심가치: 학생유익중심, 비정파성, 탁월함과 데이터, 제도와 삶의 변화 추구, 팀워크



○주요이력

- 2008년 대한민국 최초 '사교육' 문제 푸는 시민단체 출범, 사교육 관련 종합 강좌 <등대지기학교> 국내 최초 론칭
- 2009년 사교육에 대한 12 가지 오해와 진실을 밝힌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 발간
- 2011년 <국민이 설거하는 대학> 운동 출범
- 2012년 <입시사교육 제로 7 대 특별공약 운동> 출범,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운동 시작
- 2013년 <선행교육규제법> 국회 사생대회 및 국회 어린이 그림 전시회 개최
- 2014년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출범
- 2015년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캠페인 진행, 수학 교육과정 8.7% 경감 이끌어냄
- 2016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 시작
- 2017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
- 2018년 사교육절감 경험 연구 결과 6 단계 절감 과정을 밝히고 고민유형 진단도구 개발, 2차 연구 시작
- 2019년 외교 자사고 등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 유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수용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도입 및 대학 입시 서류에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고교간 차별 관행 시정
- 2020년 국내 최초 수학교과교과서 <수학의 발견> 중학교 1-3학년 완간, 부설 수학교육혁신센터 창립

○수상이력

2015년 송인수(2008~2019 공동대표, 2020 현 이사장)대표가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됨

2018년 한국 가이드스타 평가 공익법인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안정성 부문 만점

2. 주요 성과

○ 영유아 조기 교육 해소를 위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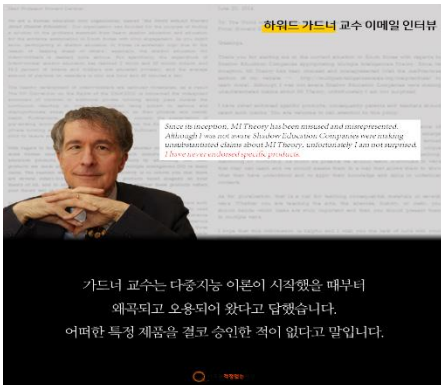
(1) 영재유치원, 영재초등학교, 영재 중학교 설립 허용을 저지하다.(2014)

•2014년 박근혜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예리사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영재유치원,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함. 이에 우리는 그런 시도가 결국 영재고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경쟁을 일으킨 것 처럼 영유아 단계부터 입시 고통과 서열화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을 크게 걱정하고, 교육부 청사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그 결과, 마침내 개정안 통과를 막아냄.



(2) 다중이론 창시자 가드너에게 편지를 써서 '다중지능이론'을 왜곡한 사교육시장을 바로잡다.(2014)

•2014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상품 중 가드너(하버드대)가 창시한 다중지능이론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림. 이에 그는 답장을 보내와 "자신은 한국의 어떤 특정 다중지능 관련 사교육 상품도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의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변함. 그로 인해 다중지능을 악용한 각종 유아 사교육 상품 판매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음.



(3)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이에 불만을 품던 학교 측과 다뤄 헌법 소원에서 이기다.(2013~2016)

•영유아들의 조기 영어교육 이상 열풍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사립초의 불법적인 영어몰입교육 실시임. 영어로 수업하는 사립초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00-200만원의 비싼수업료를 요구하는 영어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 영어 조기교육이 대세가 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립초의 온갖 불법적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며 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요구해서 바로잡음. 사립초가 이에 반발해 영어 몰입교육 중지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립초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



울산교육대학교 5학년 영어민수업 화면 (문자구조)



울산교육대학교 5학년 영어민수업 화면 (수기출표)



(4) 유아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잘못을 바로잡다.(2017)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닐 경우 ‘유치원’ 이나 ‘학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오랜 동안 방치해 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치원, 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정부가 2016년 10월 이와 관련한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영어유치원 용어가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함. 이어 2017년 교육부는 유사명칭 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 대처를 발표함.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성과

(5) 초등 1학년 한글교육 27시간을 68시간으로 늘려 한글 선행 사교육이 필요 없게 하다(2015)

•국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임. 그럼에도 수업 시수가 교과 27차시 밖에 되지 않아서 한글 교육을 미리 받지 않고 진학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으며 유아유치 단계의 한글 선행교육이 문제가 되어왔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려 할 때 한글 수업 시수를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2배 이상 늘리도록 촉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 이와 동시에 초등1학년 1학기에는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한글 선행교육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킴.

(6) 중학교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 을 제작해 수학 수업을 바꾸다(2020)

현 교과서

‘따라하기’만 하면

대안교과서

자기 주도적 발명

소수를 찾아

3의 배수는 3을 제약하고 모두 합성수이고, 3의 배수는 3을 제약하고 모두 합성수이다. 즉, 소수의 배수는 그 소수를 제약하면 모두 합성수이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구해보고 2의 배수의 자연수 중 소수를 모두 찾을 수 있다.

- 1의 배수 중 가장 작은 2는 2이고, 2의 배수를 모두 색칠한다.
- 2의 배수 중 가장 작은 3은 3이고, 3의 배수를 모두 색칠한다.
- 3의 배수 중 가장 작은 5는 5이고, 5의 배수를 모두 색칠한다.
- 남은 수 중 가장 작은 7은 7이고, 7의 배수를 모두 색칠한다.
- 이처럼 남은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골라 후, 그 수보다 큰 그 수의 배수를 모두 색칠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위의 활동에서 색칠하지 않고 남은 수는 모두 소수이다. 이 수를 모두 알려주시오.
 2. 2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고 3의 배수를 모두 색칠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오.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3

다음 표에서 2의 배수 중 소수를 모두 찾아라. 그리고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중 소수를 모두 찾아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위에서 소수를 찾는 나의 방법을 세 모로 나누어서 소수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시오.

- <수포자 없는 입시 플렌> 캠페인을 펼치며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로부터 수학 수업의 변화가 필요함을 요청받음. 이에 2017년부터 중학교 수학 대안 교과서 제작을 시작함. 전국 수학교사 집필진 40명, 실험학교 교사 33명, 4,74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중학교 1~3학년 교과서를 완간함.
-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이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을 학생과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함.

“기존 교과서는 난이도가 다양하지 않은데, 난이도가 다양해서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고 저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 권세은 학생(혜원여중) -

“기존 교과서는 공식을 손에 익혀서 푸는 느낌이라면 수학의 발견은 내가 공식을 머리로 이해해서 사용해서 푸는 느낌이에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차이점 인 것 같아요.” - 최윤영 학생(혜원여중) -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 기존 방법인데, 수학의 발견은 문제가 먼저 주어지고 제 방법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친구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 의견도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식을 찾아서 풀게 되요.” - 윤지민 학생(혜원여중) -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첫째, 불친절하다. 둘째, 답이 없다. 셋째, 혼자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했죠. 방탈출 게임 아시나요? 이 게임은 단서를 찾아 비밀번호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수학의 발견》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하니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저자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취감을 맞습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교사와 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수업이 기존 교과서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 국중석 선생님(꿈의 학교) -

- 2019년 8월 강원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강원도 전 중학교에 교과서 보급, 서울시 혁신 중학교 교과서 채택, 현재 중학생 1.2만명이 대안 교과서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교과서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학교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성과

(7)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 초중고 시험 및 대학별 논술 고사의 부작용을 해소(2014)

- 2012년 4월,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운동 출범, 1만 시민 서명 운동 시작.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 선행학습 실태 조사결과,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 70.1% (학생 7087명, 학부모 4062명 대상)로 확인됨. 지나친 진도 경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림. 2013년 6월, 국회 어린이 사생대회와 전시를 개최, 1만6천여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



- 2014년 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종 통과, 9월부터 시행됨.
- 성과: 여야당의 법안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학원 선행 상품 규제는 빠지게 되었으나, 선행교육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시험과 대학 논술고사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거나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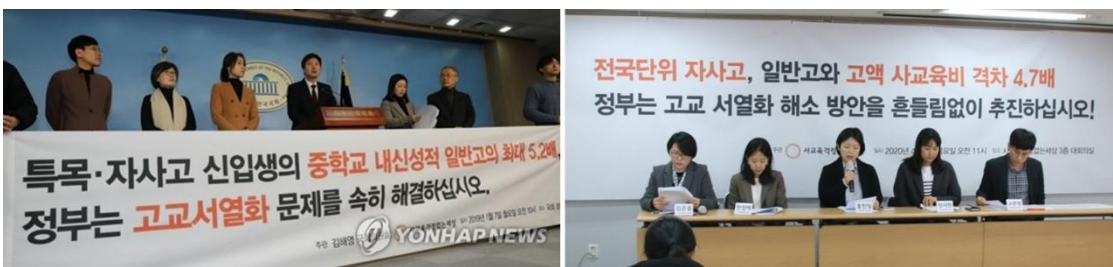
(8) 수학 교육과정 8.7% 감축 및 수능 수학 영역의 시험범위 감축(2015)



- 2015년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캠페인을 전개, 선행교육의 주 원인이 수학의 과도한 교육과정 때문임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수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감축을 요구하는 일 전개.
- 2015년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 개최 : 2013년부터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의 교과서를 수집, 40명의 분석 팀을 통해 2년 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함.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였음.
- 성과: ① 수학 교육과정 감축 - 수학의 양과 난이도를 조절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감축을 요구한 결과, 8.7%의 수학교육 감축, 고등학교 문과에서 미적분 양을 30% 감축, 이과에서 기하벡터 과목을 진로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학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냄.
- ② 수학 수능범위 감축 - 2020학년도 이전 이과의 수능 수학 시험 과목은 고등학교 수학 과목 전체였는데, 이는 고3 11월에 보는 수능 시험 시기 상 정상적인 진도 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부담이 심각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학년 2학기 과목 하나를 축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 I 과 수학 II, 두 과목을 필수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해로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음.

(9) 불공정한 고입 6단계 입시 개선 및 외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2018~2019)

- 영재고에서 떨어지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자율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과학중점학교에 진학하고, 또 다시 떨어지면 일반고에 진학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고입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오랜 동안 고통받아왔음. 이로 인해 중학교 사교육비가 고교 사교육비보다 더 높은 현상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불공정한 6단계 고교 입시 제도 문제를 2013년부터 제기해서, 모든 고교의 고입 전형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고교체제를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대폭 단순화 할 것을 제안함.



- 성과: ① 그 결과 교육부는 2018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일반고 동시 실시를 결정함.
- ② 2019년 11월,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함. 오랜 동안 고교 서열화로 고통받아온 학

생과 학부모들이 고교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진학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10) 학종에서 부모 찬스 비교과 3요소를 없애다(2019)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은 교실 수업의 변화에 기여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불공정한 비교과 요소(자소서, 경시대회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등)의 부작용이 있는 전형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랜 동안 학종의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이 많은 비교과 3요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운동을 전개함.

•2019년 11월 28일,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앞으로 학교 내신에서 소위 ‘부모 찬스’ 요소는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었음.

(11)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와 문화를 정립(2018, 2019)



•2016 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시작, 1 만 8 천여명 시민 서명을 20 대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발의의 성과를 얻음. 우리 사회의 오래된 학벌/학력 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재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켜 불필요한 진학 경쟁과 학벌 차별의 상처를 우리 학생들이 더이상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성과: ①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년 대선 후보 시절,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자 이를 수용, 공공 부문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 정책(블라인드 채용)을 집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민간 기업에서도 학벌 중심의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② 채용 뿐 아니라 입시에서도 출신학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란을 가리는 등 입학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해왔음. 그 결과, 2019 년 11 월 정부는 2020 년부터 대입전형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함. 앞으로 대입전형 전체에서 출신지역과 학교에 따른 차별적인 평가는 많이 완화될 것임.

○ 시민들의 삶/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

(12) 사교육 걱정 덜어내는 강좌 <등대지기학교> 1기~15기까지, 2천여명 부모/교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냄



(13) 잘못된 (사)교육 정보를 바로잡는 5종 소책자를 200만명에게 배포



(14) 3,800여명 후원자와 전국 60개 등대모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오늘 살아내기 위한 삶의 실천들을 나누며 활동 중



3. 앞으로 이루어 갈 과제

○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 보급 확산 및 평가 시스템 개선과 온라인 수업 모델 개발 중

1. 보급 확산 및 평가 시스템 개선

- 강원도 교육청 MOU 와 같이 교육청 단위 MOU 를 확산시킬 계획임. 또 전국 수학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안 교과서를 알리고 학교 단위별 교과서 보급을 할 예정임.
- 수학 내신 평가 개선을 위해 연구진 구성 중. 올해 10 월~내년 2 월까지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2. 온라인 수업 모델 개발 중

- 수학교육혁신센터 소속 수학교사 학습공동체가 온라인 및 학생 쌍방향 소통 수업 모델을 시연하고 개발 중에 있음. 에듀테크의 도구적·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온라인 수학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려고 함.

- 학습 공동체에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수학 수업과 평가 내실화를 위해 다음 5 가지 단계의 수업 구성을 제시함.

- [1단계] 교사가 학생들이 먼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과제 제시
- [2단계]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을 적은 답안을 교사에게 제출하기, 교사는 학생 답안을 선정 및 계열 짓기
- [3단계] 친구들의 풀이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해보고 수정하기
- [4단계] 학생 답안에 대한 형성적인 피드백 영상 제공 및 학생 생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 [5단계] 수학학습원리 점검하기

- 어떤 상황이든 수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수학 교사의 철저한 수업 계획, ▲ 서로의 생각과 실수를 존중하는 수업 문화 형성, ▲ 토론이 가능한 풍부한 수학 과제의 제시, ▲ 형성적인 피드백(formative feedback)임. 이를 위해 수학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동이 필요함.

3. 수학교사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학교육정책 대안 연구

- 수학교육혁신센터는 2020 년 5 월 설립,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학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수학교육정책 대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의 정착 및 교사 평가 전문성 향상 지원 ·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 연구 · 수학 교사 연수에 대한 연구와 실천 · 수학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화 · 교사 양성 과정 및 교원임용시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관련 사교육 경감 방안 연구 ·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인식 설문 조사를 통해 수학교육 개선 방향 연구 · 수학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정 방안 연구 ·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구 · 대학 입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활동 중

1. 실태 모니터링 및 학부모/교사 의견 청취

- 2020 년 4 월, 학부모/교사 화상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

[영역①] '학습공백,결손' 완화

- 제1과제: '핵심 성취기준' 선별 및 '학습결손 집중교과' 운영
- 제2과제: 양질의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 및 과제' 콘텐츠 마련
- 제3과제: '개별화 진도' 편성 가능한 배정형 LMS 구축
- 제4과제: 학습 연속성 및 교과 위계성을 고려한 '등교 간격 재조정'
- 제5과제: '방학 중 학습결손 보완대책' 마련

[영역②] '내실있고 책임있는' 평가

- 제6과제: '절대평가·정성평가' 중심의 평가운영 유연화

[영역③] '교육 주체 간 소통과 신뢰' 활성화

- 제7과제: 교육 주체 간 전방위적 쌍방향 소통과 신뢰 구축

- 2020년 6월, 학부모/교사 오프라인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
- 2020년 5월, '코로나 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진행(리얼미터 의뢰, 5월 23일~24일 조사,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
- 2020년 9월,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자체 설문조사, 2020년 9월 8일~9월 10일 조사, 전국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1,510명 응답)

2. 기초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 2020년 4월, 학부모 화상 간담회 결과 발표: “학부모는 ‘소통 강화’, ‘가정환경 격차 해소’,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도 경쟁보다 학습격차 해소’하는 온라인 개학 원해...”
- 2020년 4월, 교사 화상 간담회 결과 발표: “부작용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온라인 개학, 개별적 지도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의 장점에 주목해야...”
- 2020년 7월, 코로나 19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문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보완대책 발표 : “코로나 19 원격수업 장기화로 제기되는 ‘교육격차 심화’ 해결을 위한 <3대 영역·7대 과제>를 발표
- 2020년 9월 24일, 강득구 국회의원 및 5개 단체와 함께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개최

- [대책①] (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 [대책②] (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 [대책③] (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 [대책④] (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 [대책⑤] (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

•향후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함.

○ 21대 국회 입법 과제 4법 제안 활동 중

*21대 국회는 코로나 19 19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에 시급히 응답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채용 영역에까지 가정 배경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음.

1. 입법과제① ‘부모 찬스’, ‘수저론’은 이제 그만! 특권 대물림교육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1)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
- 2)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
- 3)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 실시
- 4)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 발표

2. 입법과제②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출신학교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종식!

- 1) (공공, 민간 기업) 채용 및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 2)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표시 금지
- 3)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 4)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 조항

3. 입법과제③‘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1) 일정한 내신/수능 등급이면 더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네트워크 구성
- 2)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시행함
- 3) 네트워크 대학 학생 배정은 학생이 원하는 여러 지방 대학 중에서 추첨하여 배정하는 방식
- 4)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도록 법령으로 명시

4. 입법과제④‘아동의 삶의 민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으로 극복!

- 1) 영유아의 놀권리, 건강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한 사교육 제한
- 2) 영유아의 과잉학습을 방지하고 영유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3)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학부모 교사 등에게 연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4) 과잉학습으로부터 영유아인권 보장하는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기구 설립